

1.글로벌 채권

- * <뉴욕 채권> 국채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美 대통령 당선인발 경기 부양 촉진책 기대가 지속해 하락
- * 국채가, 지난주 금요일 '재향군인의 날'과 주말에 따른 긴 휴장 후에도 트럼프 경제 성장 촉진책 기대가 이어지며 뉴욕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로 개장하자 하락 출발
- * 세계 국채시장, 트럼프의 감세 & 재정정책 확대 등에 따른 주가 상승, 물가 상승 압력 강화 우려로 수익률 급등
 - 특히 물가 상승에 가속도가 붙으면 Fed가 기존의 점진적 인상 기조를 바꿔서 인상 경로를 더 가파르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감
- * 오전장 중반 이후, 뉴욕증시 반락에 따른 저점매수가 나오면서 국채가 낙폭도 메워지기 시작했지만 오후들어 다시 낙폭 확대...변동폭은 크지 않았음

[미국]

2y	0.99%	(+7.3bp)
5y	1.65%	(+9.5bp)
10y	2.24%	(+8.7bp)
30y	2.99%	(+5.3bp)

[기타 10Y물]

영국	1.40%	(+4.3bp)
독일	0.32%	(+1.1bp)
프랑스	0.79%	(+4.9bp)
이탈리아	2.08%	(+5.9bp)
스페인	1.51%	(+4.5bp)
그리스	7.22%	(+18.7bp)

2.글로벌 증시

- * <뉴욕 마감> 기술주 약세에 혼조... 다우 금융 업종 강세에 힘입어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갱신
- * 금리 상승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금융 업종은 2.29% 급등
트럼프 당선인의 이민자 추방 발언 영향으로 기술 업종은 1.71% 급락했고 통신 업종도 0.88% 하락
- * 애플의 주가는 2.4% 넘게 하락하며 기술주 하락 주도...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(MS)의 주가도 각각 2.7%와 1.5% 내렸고 페이스북도 3.3% 하락
- * 달러가 트럼프 정부의 경기 부양 기대감과 국채 수익률 급등 영향으로 약 1년 만에 최고치까지 급등

- 달러 인덱스, 전 거래일보다 0.79% 상승한 100 기록... 한 때 100.22까지 상승하며 지난해 11월 말 이후 최고치

* <유럽 마감> 은행 업종 강세와 인수합병(M&A) 영향으로 일제히 상승
 - 지멘스, 미국의 소프트웨어 업체 '멘토 그래픽스'를 45억달러에 인수

* <상하이 마감> 10월 산업 생산 등 경제 지표의 전반적인 호조에 상승

* <도쿄 마감> 일본의 지난 3분기 경제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데 힘입어 상승

DOW30	18868.69	(+0.11%)
NASDAQ	5218.40	(-0.36%)
S&P500	2164.20	(-0.01%)
NIKKEI225	17672.62	(+1.71%)
SHANGHAI	3210.37	(+0.45%)
FTSE100	6753.18	(+0.34%)
DAX30	10693.69	(+0.24%)
CAC40	4508.55	(+0.43%)

3.글로벌 환시

* 달러화,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경제 성장 촉진 기대로 미 국채수익률이 또 상승함에 따라 상승

- 위안화, 전 거래일 고시환율 달러대비 가치 0.26% 하락한 것으로 7년 2개월 만에 최저 수준...미국 Fed의 12월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&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국 대통령 당선 등 변수로 인한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판단

유로/달러	1.0733	(-0.0114)
유로/엔	116.35	(+0.58)
달러/엔	108.39	(+1.66)
달러/위안	6.8291	(+0.0176)
파운드/달러	1.24940	(-0.01031)
NDF	1170.00 / 1171.00원...1.80원 하락	

4.글로벌 상품

* <국제 유가> 달러화 강세와 공급 과잉 우려감 지속에 하락

* <국제 금값> 달러화 강세에 하락해 약 5개월 반만에 최저치로 하락

WTI 43.32 (-0.2%)
 COMEX금 1221.70 (-0.2%)

5. 전일 국내 지표

코스피 1974.40 (-0.51%)
 코스닥 621.23 (-0.11%)
 원/달러 1171.90 (+7.10)
 KTB 109.50 (-0.50)
 LKTB 125.70 (-1.75)

6. 전일 국내 주요 금리

* 국고채 금리, 급등 마감. 미국 금리가 또 다시 상승하면서 국내 기관의 손절물량이 쏟아짐.
 - 국고 10년 1.067조, 시장 예상보다도 약하게 2.00% (+6.2bp)로 낙찰되면서 부담 상승

CD(91d) 1.3900% (0.00bp)
 1y 1.5010% (+4.90bp)
 3y 1.6100% (+10.20bp)
 5y 1.7980% (+12.80bp)
 10y 2.0610% (+12.30bp)
 20y 2.1340% (+10.70bp)
 30y 2.1450% (+9.90bp)
 50y 2.1380% (+10.20bp)

7. 본드 스왑 스프레드

1Y -7.40bp (-0.35bp)
 2Y -6.70bp (+1.80bp)
 3Y -3.00bp (+3.05bp)
 5Y -11.80bp (+2.20bp)
 10Y -20.10bp (+3.70bp)

8. IRS/CRS 동향

* IRS, 국채선물 급락으로 오퍼가 거의 없는 가운데 손절성 물량이 나오면서 금리 대폭 상승 마감.

* CRS, 달러-원 환율 상승에 대폭 상승 마감.

*IRS 금리

1Y	1.4300%	(+3.75bp)
2Y	1.5100%	(+10.50bp)
3Y	1.5800%	(+13.25bp)
5Y	1.6800%	(+15.00bp)
7Y	1.7625%	(+16.00bp)
10Y	1.8600%	(+16.00bp)

1*2Y	8.00	(+6.75bp)
2*3Y	7.00	(+2.75bp)
2*5Y	17.00	(+4.50bp)
3*5Y	10.00	(+1.75bp)
5*7Y	8.25	(+1.00bp)
5*10Y	18.00	(+1.00bp)

*CRS 금리

1Y	1.0400%	(+5.00bp)
2Y	0.9750%	(+4.00bp)
3Y	0.9850%	(+4.00bp)
5Y	1.0550%	(+7.00bp)
7Y	1.0650%	(+7.50bp)
10Y	1.0750%	(+7.50bp)

9. 주요뉴스

[해외]

[국내]

* 한은 "금리 상승 과도 조치검토"...시장 "직매입 가능"

* 유일호 "환율 변동성 신흥국 수준...급변동 시 스무딩"

* 한은 "美금리인상의 신흥국 충격, 물가 높아지면 더 커져"

금일 예정 지표

[스탠리 피셔 Fed 부의장 연설]

[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연설]

[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연설]

[에릭 로젠그렌 보스턴 연은 총재 연설]

[호주중앙은행(RBA) 11월 회의 의사록]

독일-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4%) / GDP(YoY) (예상:1.8%, 이전:3.1%)

-11월 ZEW 경기기대지수 (예상:8.9, 이전:6.2)

영국-10월 CPI(YoY) (예상:1.1%, 이전:1.0%)

유로존-3분기 GDP(QoQ) (예상:0.3%, 이전:0.3%) / GDP(YoY) (예상:1.6%, 이전:1.6%)

-9월 무역수지 (이전:18.4B)

미국-10월 소매판매(MoM) (예상:0.5%, 이전:0.6%)

-10월 근원 소매판매(MoM) (예상:0.4%, 이전:0.5%)

-11월 뉴욕 엠파이어스태이트 제조업지수 (예상:-3.00, 이전:-6.80)

-10월 수출물가지수(MoM) (예상:0.2%, 이전:0.3%)

-10월 수입물가지수(MoM) (예상:0.4%, 이전:0.1%)

-9월 기업재고(MoM) (예상:0.1%, 이전:0.2%)